영생을 믿는가? April 17

• 요한복음 3:16-18, 36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生靈)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고백은 또 다른 죽음을 전제합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는 형벌, 즉 둘째 사망입니다(계 21:8). 영생에는 천국과 지옥이 맞물려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통과 불의가 없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이의 가치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곳,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곳이 천국입니다(계 21장). 지옥은 그 반대입니다. 아담 해밀턴은 ‘천국을 택하지 않은 자들이 가는 곳’을 지옥이라고 봤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자기만족만 찾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C. S. 루이스 역시 “지옥은 문이 안에서 잠겨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구원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됩니다(요 3:18).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은 ‘죽음 이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세’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묻고,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합니다. C. S. 루이스의 말처럼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영생의 삶에 대한 겉표지(cover page)와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심판’의 존재를 상기시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이 땅에서 해야 할 선택 중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에
담긴 의미를 깨닫습니까?

❶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❷ 나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습니까?